

## ‘제보 조작’ 파문... 지도부 책임론 번져

국민의당 대선 때 ‘문준용 제보 조작’ 일파만파... 최대 위기

체포 이유미씨 “당이 기획·지시해놓고 희생양 삼아” 반발

국민의당이 지난 대선 당시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특혜 취업과 관련된 녹취가 허위 제보였다고 대국민 사과를 한 직후 당원 이유미씨가 긴급 체포된 데 이어 안철수 전 대표 등 지도부 책임론까지 거론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7일 조작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긴급체포 이틀째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제기된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이후를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해 국민의당 당직자에게 사실인 것처럼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했지만, 본인의 독자적 판단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이 기획해 지시한 일인데 자신을 희생양 삼아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국민의당 대선 캠프 차원에서 이번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조작 사실을 사전에 파악한 인사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조사 결과에 따라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과 부단장을 맡은 김인원 변호사,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추가 소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대선 당시 지도부가 이번 일을 몰랐다는 입장과 함께 연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파문의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한 자체 진상 조사를 통해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힌다는 방침이다. 진상조사단장에는 울산 출신의 재선인 김관영 의원을 임명했다. 국민의당은 이와 함께 정국 돌파용으로 문준용씨의 취업 의혹 수사까지 포함한 특검 카드를 꺼내 들고 나섰다. 하지만 특검 카드는 ‘물타기’로 보일 수 있어 역풍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문준용씨 의혹 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 “안철수 후보와 당시 책임있는 사람들은 국민 앞에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당의 특검 주장에는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반발했다. 보수 야당들은 국민의당 대선 의혹 조작을 강력 비판하는 동시에 특검 카드에 동조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 이번 사태가 정국의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크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전 대표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의 결과와 국민의당의 정치적 생존이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세 개편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일부 의원들의 탈당과 민주당과의 통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민간공원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심사 실패자들 “건설사에 배점 유리” 반발

정부, 제도개선 논의키로

고 밝혔다.

광주시가 추진중인 ‘민간공원 개발’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심사에서 민간 건설사에 유리한 배점 기준을 적용했다며 실패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공실적이 없으면 점수를 적게 받는다는 점에서 불이익이라고 하지만, 시공실적이 좋은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하면 실패자 참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추진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공모 과정의 잡음과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지자체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주요 내용은 현재 사업추진 현황과 지역사회의 여론 등 현황, 이에 따른 대체 및 제도 개선 방향 등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국가공원 지정 등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지난 5·9 대선과정에서 전국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국가도시공원 전국 민관네트워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 내 광역시도별 국가공원 1곳을 지정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기 때문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에 따라 실패자들이 사실상 시공실적이 없는 실패자를 배제하기 위한 평가 방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A실패자 관계자는 “광주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는 시공실적이 아닌 사업실적과 시행실적도 인정해준다”면서 “유독 시공실적에만 배점을 준다는 것은 민간 건설업체에 유리하고 실패자들에게는 불리한 참여 조건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실패자들과 형성성에 어긋난 조항에 대해 논의한 뒤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검토해볼 계획이다”



### 10초07

### 김국영 ‘꿈의 9초대’ 보인다

단군 이래 가장 빠른 사나이 김국영(26·광주광역시청)이 27일 강원 정선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7 코리아오픈국제육상경기대회 남자 100m 결승전에서 10초07에 결승선을 통과하고 나서 포효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연합뉴스

광주시청 소속 100m 한국新... 세계선수권 출전권도 따내

‘신기록 제조기’ 김국영(27·광주시청)이 한국 육상의 단거리 역사를 새로 썼다. 한국인 최초로 100m를 10초 0대에 뛰는 대기록을 세우면서다. 본인이 세운 한국 신기록만 5차례 경신하면서 명실상부한

‘한국 육상의 간판’임을 재확인했다. 이를 전 야속한 뒷바람에 날렸던 ‘세계선수권 출전권’도 거머쥐었다. 김국영은 27일 강원도 정선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7 코리아오픈국제육상경기

대회’ 남자 100m 결승전에서 10초07의 기록으로 맨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를 전 자신이 세웠던 한국신기록(10초13)을 0.06초 단축한 것으로, 한국 육상 최초로 100m를 ‘10초 0대’에 올려놓는 대기록이다. 국제육상경기연맹이 제시한 기준기록

(10초12)도 통과하면서 올 8월 4일 런던에서 개막하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도 얻었다. 그는 경기 뒤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는 꼭 9초대에 진입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법무장관에 非고시·非검찰 박상기 교수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박상기 후보자 박은정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장관에 형법학 전문가인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65)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발탁했고,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진규(54)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명했다. <프로필 2면> 이로써 현행 정부조직상 17개 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외한 15개 부처 장관이 발표됐다. 무안 출신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온건·합리적 성향의 개혁주의자이지만 검찰과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매우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기획조정실장에 신현수(59)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이날

밝혔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The Completion of SUV Line up

G-Class, GLS, GLE, GLE Coupé, GLC, GLC Coupé, GLA  
메르세데스-벤츠 SUV 라인업의 완성.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와 함께 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화정동) / Tel. 062)226-0001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